

2023. 12. 19.(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담당관	김현미	02-2133-5162
아동보호팀장	김현강	02-2133-5174
관련 누리집	https://www.sjarip.or.kr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서울시,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교육 '배움마켓'으로 "진짜 자립" 지원

- 금융사기 예방, 집 계약, 근로계약하기 등 7월 시작 이후 707명 수료, 만족도 4.4점(5점 만점)
- 금융·주거·노동·법률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로 구성, 자기이해 위한 인문학 교육도
- 내년 교육 프로그램 2월 시작...1월 개설 예정인 '배움마켓' 누리집서 신청 및 이수증 발급

< 서울시 '배움마켓' 수료자 후기 >

- # “경제적인 부분들이 막연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주거와 금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어 개운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아직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과 4대보험에 대한 내용 등 미래를 위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수업이었습니다.”
- # “인문학이 결국은 나를 짚어 보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명 깊은 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호 종료’는 진짜 자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들에게 자립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 투성이다. 살 집도 구해야 하고, 공과금도 직접 내야 하며,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가르쳐줄 어른이 없었던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모든 게 도전이다.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예비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만 15세부터 보호종료 시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 서울시는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립역량교육 ‘배움마켓’을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 이달 11일을 끝으로 ‘배움마켓’의 2023년도 교육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약 5개월 간 총 707명의 (예비)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해 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여 청년들의 교육 만족도는 평균 4.4점(5점 만점), 교육별로는 ‘금융 교육’이 4.6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 ‘배움마켓’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겪는 일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강의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이다. ‘배움마켓’이라는 명칭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원하는 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 집단면접(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방향과 내용을 정하고, 선배 자립준비청년 강사 양성을 통해 실제 교육 진행 시 선배가 함께하는 등 교육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도를 높였다.

- ‘금융·주거 교육’은 자립에 가장 필수적이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교육이다. ‘금융교육’의 경우 신용관리와 대출, 금융사기 예방, 첫 독립자금 사용계획과 금융상품 이해 등의 내용이, ‘주거교육’은 주거 환경 점검과 계약하기, 집수리 시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노동·법률 교육’의 경우, 아직 구직·직장 경험이 부족할 사회초년생을 위해 구인 광고 훑어보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와 4대보험, 직장 내 괴롭힘 대처하기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한다.

- 인문학 교육은 타로카드를 활용한 자기이해, 영화를 통한 나를 수용하기 등 자신을 마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024년부터는 자기이해에 더해 타인·공동체 이해, 자립 동기부여 등 주제를 확대하여 내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장의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문학 강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 보호종료 전후 (예비)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배움마켓’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0+SEOUL)’에 위치한 교육장(+SEOUL)에서 주로 주말과 방학기간에 강의를 진행한다.

- ‘영플러스서울(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은 휴식·소통공간인 ‘카페 영(Cafe0)’과 교육공간인 ‘플러스서울(+SEOUL)’을 포함해 상담 및 자조모임·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운영 중인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이다.

- 한편,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배움마켓」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선·보완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는 기존에 만족도 높았던 사업 위주로 확대·강화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추진하고 있다.
 - ‘자립정착금’ 확대(1,500만원→2,000만원), 대중교통비 지원(월 6만원), ‘인생버디 멘토단’ 구성·운영, ‘우리끼리 여행캠프’ 규모 확대(10팀→30팀), 문화·힐링 프로그램 신설 등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 2024년도 ‘배움마켓’ 교육과정 및 일정은 2024년 1월 중 개설 예정인 ‘배움마켓’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 관련 서비스도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호 종료 후 일상생활은 매일매일이 도전이다. 자립 이후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사전준비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전부터 ‘배움마켓’을 통해 자립생활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배워 첫 독립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배움마켓’은 연중 수시로 열려있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땐 언제든지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배움마켓」 포스터



「배움마켓」 누리집(안)



「배움마켓」 교육사진 1



「배움마켓」 교육사진 2